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받는다

문체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 조약 발효는 7월 22일

BTS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되면 이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해당 조약은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아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이 보호대상이다. 이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같은 댄스그룹,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약을 통해 이처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케이팝 가수나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한류붐이 일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권권 부여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비디오나 VOD 영상 등)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부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WIPO는 1997년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의제로 '시청각 실연 보호'를 채택해 해당 조약 채택을 논의해오다 2012년 6월 채택했다. 베이징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돼있다. 이에 올해 1월 28일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2일 가입서를 WIPO에 제출함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에 조약이 발효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미 보호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오늘은 세계 책의 날'

예스24 독서 장려 이벤트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독서 장려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책의 가치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예스24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도서와 꼭 읽어봐야 할 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최승필의 '공부머리 독서법'이나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 이영서·김동성의 '책과 노니는 집' 등 책을 이야기하는 책과 예스24 MD가 엄선한 필독서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김수현의 '나는 내대로 살기로 했다', 손원평의 '아몬드' 등이 포함됐다. 독자들은 기획전 및 추천도서를 포함해 국내외 도서 및 중고 직배송 도서를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책 모양의 점착 메모지 '문학 플딩 북 스티커'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23일 하루 동안은 전국 예스24 중고서점 9개 매장에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누 장미꽃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뉴시스

"향기로 하나 되는 단체 되도록 힘 보태 것"

나태주 신임 시인협회장



'꽃'의 나태주 시인(사진)이 제43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2일 한국시인협회에 따르면 나태주 시인은 지난 18일 열린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시인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나 신임 회장은 올 2월 초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본래 지난달 21일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기총회가 연기되면서 취임도 늦어졌다. 나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향기로 하나 되는 한국시인협회"를 강조했다. 그는 "어려서 시를 공부할 때 시인은 이름에서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향기는 역지를 부리지 않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타자를 존중한다"며 "어울려 하나가 되자, 한국의 예술단체 가운데 종잡잡인 우리 한국시인협회, 향기로 하나 되는 단체가 되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라는 것이 작고 미약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킴으로써 보다 넓고도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 시대 심정적으로 합들게 사는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우리 협회가 되고, 저희들 시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했다. 나 신임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서 가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는 길에 외로움을 달래고 힘겨움을 가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내용의 시 '꽃'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인이다. 194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1971년 박목월·박남수 시인 추천으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며 시인이 됐다. 1964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4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 2009년부터 8년 동안 충남 공주 문화원장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는 공주꽃문학관을 설립·운영 중이다. 그간 충남시인협회장, 충남문인협회장, 공주문인협회장을 역임했다. 수상 이력은 ▲홍익문화상 ▲박용래문화상 ▲편운문학상 ▲현대불교문화상 ▲유심작품상 ▲난고문학상 ▲공초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김소월시문학상 등이 있으며 첫 시집 '대숲 아래서'부터 '너의 햇빛에 마음을 말한다'까지 창작시집 45권과 시화집, 동화집, 필사시집, 선시집, 산문집 등 100여권을 출간했다. /뉴시스

'백자 달항아리' 호주행... '문화재 한류' 앞장

문화재청, 빅토리아미술관 등
국외 전시 위해 영구 반출 허가



조선 후기 제작된 백자 '달항아리'가 호주로 나가 '문화재 한류'에 앞장선다. 문화재청은 지난 16일 '백자 달항아리(白磁壺)' 1점을 국외에 전시하기 위해 영구 반출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구 반출을 허가받은 백자 달항아리는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GV·National Gallery of Victoria)이 미술관 내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작품이다.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1861년에 설립되어 호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미술관으로 현재 7만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미술관은 '한국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된 '책가도(冊架圖)'와 20세기 초 제작된 '연화도(蓮花圖)'를 구입한 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영구 반출했으며 이

정문화재나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같은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무늬가 없는 하얀색에 둥근 형태가 마치 달을 연상시킨다고 해 달항아리로 불린다. 18세기 조선시대에 다수 제작된 만큼 국내에서 아직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이번 백자 달항아리가 국외에 전시돼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되면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 9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구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구매하거나 기증받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영구 반출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반출되는 백자 달항아리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의 한 국관에 전시돼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카카오페이지, 웹툰 콘티 공모전 개최... 6월 30일까지 접수

카카오페이지가 22일부터 콘티공모전 '콘티 왕으로 살아남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콘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력 있는 콘티 작가를 개발·발굴하기 위한 첫 콘티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 콘티 작가는 웹툰

줄거리 구성과 컷 구성 및 연출에 특화된 이들을 지칭한다. 웹툰 제작 과정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스토리 구성력과 연출력을 갖춘 이러한 콘티 작가의 역할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 착안, 기존 웹툰 공모전에서 한발짝 나아가 콘티 공

모전을 열게 됐다. 응모자격은 신인은 물론 기성 작가도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창작 작품 또는 카카오페이지의 오리지널 웹소설 12편 중 희망 작품의 콘티를 투고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7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